

일본어 극어 *dare-mo/-demo*의 의미 연구

변현아*, 이정민*, 남승호*, 정대호**, 최진영*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 한양대학교 영미언어문화학부

A semantic analysis of Polarity Items *dare-mo/-demo* in Japanese

Hyuna Byun*, Chungmin Lee*, Seungho Nam*,
Daeho Chung**, Jinyoung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inguistics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요 약

본고는 일본어 극어 *dare-mo/-demo*의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그 허용맥락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고는 *dare-mo/-demo*의 의미가 다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변형적 성격의 비한정사 *dare*이고 둘째는, 고저 강세 유형, 셋째는 가능성의 척도(Likelihood Scale)에 기반한 *-mo/-demo*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러한 척도를 형성시켜주는 맥락(context)이다. 이 네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daRE-MO/DARE-mo/daRE-DEMO/DARE-demo* 각각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

또한 본고는 *dare-mo/-demo*의 분포를 통해 드러나는 극어들 사이의 의미 차이, 척도(scale)상의 양(quantity)과 질(quality)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즉 *-mo* 결합형의 경우 양에 민감한 가능성의 척도가 고려되는 것에 비해, *-demo* 결합형에서는 양뿐 아니라 질에도 민감한 척도가 고려된다. 그 결과 *-demo* 결합형들은, 양적 측면과 연관하여 조건/명령/외연적 맥락 등에서 존재 양화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 하한가(lower bound)까지 허용하는 강한 양보의 의미(derogative sense)를 갖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 서론

일본어 부정칭(indeterminate) *dare*는 조사 *-mo* 혹은 *-demo*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극어(Polarity Items)를 만들어 낸다: *daRE-MO / DARE-mo / daRE-DEMO / DARE-demo*.¹⁾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들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일반화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본고는, 한국어 아무 계열의 극

어에 대한 Lee, Chung and Nam(2000)의 접근 방법을 따라, 위에 제시된 일본어 극어들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dare*의 의미는 단일하며, 각 표현들의 의미 차이는 그것을 구성하는 다음 세 가지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즉, 각 극어의 의미는, *dare*의 의미, *-mo/-demo*의 의미, 그리고 화용론상의 척도를 도입하는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본고에서는 강세가 의미 차이를 낳는 일본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저 강세를 일본어 극어의 의미 결정에 있어 또 하나의 요인으로 추가하여 제시한다.

그러므로 일본어 극어 *daRE-MO /*

1) 대문자 표기는 고저 강세(pitch accent)를 받는 부분을 나타냄.

DAre-mo / *daRE-DEMO* / *DAre-demo*의 의미는 위의 네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산출된다. 이제 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것들이 전체 의미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알아보자.

2. 의미 결정의 네 가지 요인

2.1. *dare*의 변항적 성격

Nishigauchi(1990)는 Heim(1982)의 비한정사 이론에 근거하여 일본어의 *wh*-표현을 분석하였다. 즉, 통사 환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 *dare* 자체는 자신만의 양화적 힘을 갖지 않는 비한정사라고 보았다. 이정민(1997)과 이영주(1999)는 이러한 논의를 이어, 일본어 *dare*에 대응되는 한국어 누구냐의 누구- 역시 비한정사로서의 변항적 성격을 갖는다고 제안하였다.

본고는 동일한 관점에서, *dare*를 변항적 성격을 갖는 비한정사로 규정한다.

2.2. 고저 강세(Pitch Accent)에 의한 차이

일본어 극어는 고저 강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본고는 이러한 고저 강세 패턴에 따른 극어의 의미 차이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dare-mo*는 고저 강세 패턴에 따라 부정 극어와 보편 양화사로 구별된다. 다음 예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 (1) a. *daRE-MO* go-nakat-ta
nobody-NOM come-NEG-PAST
'No one came.'
- b. *DAre-mo* ga ki-ta
everybody -NOM come-PAST
'Everyone came.'

2) 주격 조사 'ga'을 취하는 동시에 문장어미 'ka'와 공기하는 경우, 'dare'는 의문사로 해석된다. 한편, 문장 어미가 아닌 'ka'와 결합하는 경우 보편양화사로, 또 '-mo'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존재양화사/부정극어로 해석될 수 있다.(이영주, 1999)

(1a)의 *daRE-MO*는 부정극어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1b)의 *DAre-mo*는 보편 양화사로 해석된다. 그런데 *DAre-mo*는 부정과 공기할 경우 중의성을 갖기보다는, 부정소보다 더 넓은 영향권을 갖도록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1a)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부분 부정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주로 외부 부정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DAre-mo*는 부정의 영향권 안에서 허가되는 부정극어와는 상반되는 특성을 지닌다.

둘째, *DAre-demo*와 *daRE-DEMO*의 고저 강세 유형의 차이는 화용론적인 의미 차이를 가져온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질(quality)적 측면에서의 하한값에 해당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의미(derogative sense), 즉 '질(quality)이 낮은 것이라 할 지라도'라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전달해 준다.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수량 표현(numeral)들과 결합하는 -mo의 경우, 명사구 자체의 강세 패턴이 아닌 부정소에 대한 강세의 유무가 명사구의 의미 차이를 표시해 준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san nin mo*가 부정문에서 쓰이는 경우, 명사구 자체의 강세 유형(SAN MIM mo)만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초점 강세에 기반하여 슬어부의 부정소에 고저 강세가 놓이는 경우, 전형적인 부정극어로 해석된다.

- (2) a. SAN NIM-mo ko - **NA**kat - ta
three men-MO-NOM com-NEG-PAST
'Less than three men came.'
- b. SAN NIM-mo ko - **na**kat - ta
three men-MO-NOM com-NEG-PAST
'As many as three men didn't come.'

(2a)와 달리 부정소에 강세가 놓이지 않는 (2b)의 경우, 전체 명사구 *san nin mo*는 세 사람(만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 부정소에 대한 강세의 유무가, 의미 차이의 중요한 표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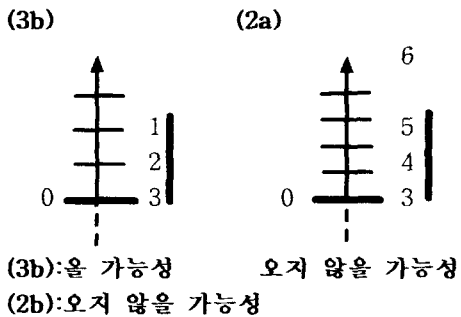
2.3. *mo/demo*의 의미:

가능성의 척도와 양보(concession)

일본어에서 *-mo*와 *-demo*의 분포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명사구와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mo*는 첨가(also)와 양보(even)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각각 한국어의 *-도와 -나*에 대응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a. *Yoko-mo ki-ta*
'Yoko also came.'
- b. *san nim-mo ki-ta*
'As many as three men came.'

*-mo*는 한정적인 명사구 *Yoko*와 결합하는 경우 특정한 척도와 상관없이 첨가의 의미만을 갖는 반면, (3b)와 같이 비한정 명사구 *san nin*과 결합할 경우에는 강조의 효과를 낳는 양보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 양보의 의미란, '사람들이 올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기대치의 척도(scale)에서 *san nin*이 하한치(a lower bound)를 가리킨다는 화용론적인 분석에서 나온다. 즉 '(세 명이 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명이나 왔다.'라는 의미에서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 다음 표에서 첫 번째 그림은 (3b)의 *-mo*의 의미를 보여준다.



< 표 1 : Likelihood Scale >

(3b)의 가능성의 척도에서 '세 사람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지점에 위치한다. 즉 더 적은 수의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낮은 지점-주어진 문맥에서의 최저치에 해당하는 *san nin*에 대한 서술은 양보의 의미를 낳는다. 또한 이러한

척도는 부정과 공기하는 (2b)의 *-mo*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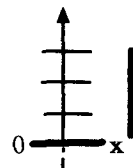
또한 [표 1]의 두 번째 그림은, (2a)에서 부정과 함께 쓰여 부정극어를 형성하는 *-mo*의 양보 의미를 보여준다. 이 때 주어진 문맥에서, '세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지 않을 가능성'은 척도상에서 보다 높은 지점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가능성의 척도에서 매우 낮은 지점인 *san nin*에 대한 서술은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

본고는 [표 1]에서 제시된 가능성의 척도가 수량(quantity)에 민감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표 1]의 그림이 보여주듯이, *-mo*는 수량에 민감한 가능성의 척도(likelihood scale)에 기반하여 양보의 의미를 얻는다고 제안한다.

이에 비해 *-demo*는,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quality)적인 척도와도 연관되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 a. *Yoko-demo ki-ta*
'Even Yoko came.'
- b. *Bento-demo tabeyo:*
'Let's just try a lunch box.'
- c. *san nin-demo kita-nara,*
'If at least three men came,'
- d. *san nin-demo sono sigoto-o dekiru*
'Even three men can do it.'

(4a-d)에서 *-demo*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이)라도/-나*에 대응되는 의미를 갖는다. Lee, Chung, Nam(2000)는 *-(이)라도*를 질(quality)적인 면에 민감한 가능성의 척도에서 문맥상 최저치를 가리키는 표지로 본다. 이는 (4a-d)에서의 *-demo*의 의미 기능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다음 표는 *-라도*와 유사한 *-demo*의 양보 의미를 보여준다.



< 표 2 : Likelihood Scale >

위의 [표 2]에서 x에 해당하는 *Yoko / bento / san nin* 등은 모두, 화자의 기대치에 기반한 가능성의 척도에 있어서 문맥상 매우 낮은 지점(low bound)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demo*는 이러한 최저치의 요소부터 시작하여 그 상위의 모든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양적인 면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도 민감한 척도를 가진 *-demo*는, 한정적 표현과 비한정적 표현간에 의미상의 차이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mo*와 구별된다.

결론적으로 *-mo*와 *-demo*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일반화하려 제시하려고 한다:

*-mo*와 *-demo*는, 모두 화용론적인 가능성의 척도에서 하한치를 가리킴으로써, 양보의 의미(concessive meaning)를 갖는다. 그러나 *-mo*는 양적인 측면에 민감한 척도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demo*는 양적인 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도 민감한 척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emo*가 양적&질적 측면에 모두 민감한 척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demo*와의 결합형이 *-mo*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2.4. 맥락(context)

일본어 극어(Polarity Items)에 있어 맥락의 중요성은, *-mo/-demo*가 요구하는 화용론적인 척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Lee, Chung, Nam(2000)에 따르면, 척도상의 함축을 낳는 양상 맥락에서는 극어가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그러므로 일본어의 경우에서도 역시, 화용론적 척도를 요구하는 *-mo*와 *-demo* 모두 양상 맥락에서 허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5)a. *san nim-mo sono sigoto o dekiru*
'As many as three men can do it'
b. *san nin-demo sono sigoto o dekiru*
'Even three men can do it.'

(5)에서 한국어 할 수 있_다에 대응되는 *dekiru*가 능력(ability)에 관한 화용론적 척

도를 도입하므로, 그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mo/-demo* 두 유형의 극어가 모두 자연스럽게 허가된다.

반면, 척도상의 함축이 약한 맥락은 극어의 의미를 제한하기도 한다. Lee, Chung and Nam(2000)은, *아무나*와 *아무라도*가 존재적(existential) 해석을 갖는 점을, 이와 같은 맥락의 특성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즉, '일화적(episodic) 맥락/명령문/조건문/습관구문/전칭양화구문' 등에서는 척도상의 함축이 자연스럽게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양상 맥락에서와 같은 보편 양화의 의미가 아닌 존재적 해석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어 극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6) a. *DAre-demo ae-ba*
'Meet whoever it might be.'
b. *daRE-DEMO ae-ba*
'Meet **whoever** it might be.'

(6)에서 *DAre-demo*와 *daRE-DEMO*는, *누구나* *다*라는 보편 양화의 의미가 아닌, *아무나* *몇 사람*이라는 존재 양화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 특이할 만한 점은, (6)에서와 같이 *dare*와 *-demo*의 결합형에서만 존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mo*의 결합형인 *DAre-mo(ga)*나 *daRE-MO*는 어떤 맥락에서든 존재적 해석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네 가지 결합형의 의미와 분포

위의 네 가지 요인-*dare*의 의미, *-mo / -demo*의 의미, 고저 강세, 맥락-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각 결합형의 의미를 낳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그 분포를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3.1 *daRE-MO*

*daRE-MO*는 비한정사 *dare*와 화용론적 척도를 갖는 *-mo*가 결합된 형태이다.

*daRE-MO*는 한국어 누구도/아무도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NPI로서, LHH의 고저 강세가 이를 표시해 준다. 그리고 부정과의 공기에서 얻게 되는 *daRE-MO*의 보편양화적 힘은 맥락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daRE-MO*는 ‘부정 표현이나 부정술어’ 등 한정된 맥락에서만 허용되는 극성(Polarity)을 보인다. 다음 예문은 이를 보여준다.

- (7)
- a. **daRE-MO* ki-ta
‘Anyone came.’
 - b. **daRE-MO* ki-tara watashi-ni koyetene
‘If anyone comes, please let me know.’
 - c. *daRE-MO* ko-nakat-ta
‘Nobody didn’t come.’
 - d. *daRE-MO* igi-o mo’shitatenikui
‘It is difficult for anyone to criticize it.’

*daRE-MO*는 (7a)의 긍정의 외연적 맥락과 (7b)의 조건문을 포함하여, ‘-기 전에, 명령문, 비교구문, 전칭양화사구문, 습관구문, 기껏해야, 다행이다, 총칭, 간접허용³⁾’ 등 대부분의 구문에서 쓰일 수 없다. 이와 달리 (7c)의 부정이나 (7d)의 부정술어 등 부정의 의미와 관련된 한정된 구문에서만 허용된다.

3.2 *DAre-mo*

*DAre-mo*도 비한정사 *dare*와 *-mo*의 결합형이지만, HLL의 고저 강세 패턴에 의해 보편 양화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daRE-MO*와 구별된다. *DAre-mo*의 보편양화적 힘은 자유선택(Free Choice)의 의미로부터 나온다. 즉, 비한정성을 지닌 *DAre*와 *-mo*의 결합으로 인해, *DAre-mo*는 특정한 지점만이 아닌 척도상의 모든 지점을 가리킬 수 있다는 자유선택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DAre-mo*는 배분적인 보편 양

화의 힘을 지닌 한국어 누구나에 대응하는 표현이다.

*DAre-mo*가 보이는 분포상의 특징을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8) a. *DAre-mo* ga ki-ta
‘Everyone came.’
b. *DAre-mo* ga ko-nakat-ta
‘For Everyone, he didn’t come’
c. **DAre-mo* o ae-ba
‘(Why don’t you) Meet anyone.’

첫째, (8a)와 같이 보통 일화적인(episodic) 맥락을 기피하는 자유 선택어와는 달리, *DAre-mo*가 일화적인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는 *DAre-mo*가 보편 양화사로 굳어져 왔기 때문이다.

둘째, (8b)에서 *DAre-mo*는 부정의 맥락에서 허용될 경우, 항상 부정에 대해 더 넓은 영향권을 갖는다. 이는 부정보다 항상 넓은 영향권을 갖는 자유 선택 기제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그 결과 (8b)는 전체 부정의 의미 즉, *daRE-MO* ko-nakat-ta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DAre-mo*가 부정의 영향권 내에서 부분 부정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 *mono dewa nai*와 같이 외적 부정(denial)의 구문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8c)에서와 같이 *DAre-mo*는 목적어 자리를 기피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전형적인 보편 양화사 *minna*와 구별되는 점이다.

이러한 분포상의 특성을 지닌 *DAre-mo*가 가진 보편 양화의 의미는, 특정 맥락에 관계없이 유지된다.

3.3 *DAre-demo* / *daRE-DEMO*

3.3.1 분포의 유사성

*DAre-demo*와 *daRE-DEMO*는 분포상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둘은 부정칭 *DAre*와 질(quality)에 민감한 화용론적 척도를 요구하는 ‘-demo’가 결합하여, 보다 강한 양보의 의미를 낳는다. 이 때 *DAre-demo*와 *daRE-DEMO*간의 고정 강세의 차이는,

3) 이 맥락들은 Lee · Chung · Nam(2000)에서 *amu-to/-irato/-na*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것들로, Gianakidou(1988)에 기반해 있다. 여기서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 극어의 전체적인 분포를 제시하지 못했다.

분포상의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고 다만 화용론적인 의미 차이를 낳는다.

맥락에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DAre-demo*와 *daRE-DEMO* 모두 특정 맥락에서 존재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즉, *DAre-demo*와 *daRE-DEMO*는 ‘조건, 명령, 전칭양화구문, 외연적 맥락’ 등에서는 보편양화의 의미가 아닌 존재적 해석을 얻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 (9) *daRE-DEMO/DA-redemo kitakara wataash-ni kyoetene.*
 ‘*If anyone came, let me know.’

(9)에서 *DAre-demo*와 *daRE-DEMO*는 ‘어떤 사람이든지 한 (두)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끝으로 부정 맥락에 있어, *DAre-demo/daRE-DEMO*는 일반적인 부정 맥락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외적 부정에서만 허용된다.

- (10) a. *DAre-demo/daRE-DEMO kuru-to -iu-mono-dewa-nai*
 ‘It is not the case that everyone comes.’
 b. 아무나 안 와.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니야.

(10a)에서 *DAre-demo / daRE-DEMO*가 그 자체로는 외적 부정의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은, (10b)에서 한국어의 *amu-na*가 가진 외적 부정의 힘과 대조된다.

3.3.2 의미 차이

동일하게 *-demo* 결합형인 *DAre-demo*와 *daRE-DEMO*는 분포상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구별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1) a. *DAre-demo tsuretekite*
 ‘Bring anybody (to see me)’
 b. *daRE-DEMO tsuretekite*

‘Bring anybody **whoever** it might be (to see me)’

(11a)와 달리 (11b)는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라는 강한 양보의 의미(derogative sense)를 갖는다. 이것은 *daRE-DEMO*의 경우, *-demo*가 요구하는 화용론적인 척도에 있어서 문맥상의 하한치가 객관적으로도 매우 낮은 지점(lower bound)에 있다는 의미까지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11a)는 질적인 면에 민감한 척도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척도상의 하한치에 대한 특징한 화용론적 전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 (11a)와 (11b)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는, 앞서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바로 고저 강세 패턴의 차이(HLL/LHH)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일본어 극어(Polarity Items) *dare-mo/-demo*의 의미와 분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양한 결합형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그 의미 구성의 요인으로 ‘*dare*, *-mo/-demo*, 고저 강세, 맥락’을 설정하고 우선 그것들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때 고저 강세에 따른 의미 차이와 함께, *-mo/-demo*의 의미를 화용론적 척도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설명 방식은, 다양한 결합형의 의미를 보다 일관된 체계 안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본고는 *daremo/-demo*에서 *-mo/-demo*의 의미 차이에 주목하였다. 즉, *-mo*는 양(quantity)에 민감한 척도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후자의 *-demo*는 질(quality)에도 민감한 척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하였다. 그 결과 *-mo* 결합형들과는 달리, *-demo* 결합형인 *daRE-DEMO/DAre-demo*의 경우, 질적인 면에서 하한치를 전제하는 의미뿐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 존재적 해석을 갖는다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

- Giannakidou, A., 1998. Polarity Sensitivity as (non)veridical Dependenc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Hiroshi, Aoyagi and Toru, Ishii, 1993, On NPI Licensing in Japanese. *The Proceedings of the 4th Japanese/Korean Linguistics*.
- Kadmon, N. and F. Landman, 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4: 353-422.
- Kim, Jee-eun, 1999. NPIs and Free Choice in Korean: with the emphasis on *anwu-N-to / (i)lato / (i)na*.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Yoon-shin, 1995. A study of the meaning of 'AMU',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adusaw, W., 1979. Polarity Sensitivity as Inherent Scope Rel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Lee, Chungmin, 1996. Negative Polarity Items in English and Korean. *Language Sciences* 18: 505-523.
- Lee, Chungmin, 1999a. Negative Polarity and Free Choice: Concessive in Korean, Japanese and Other Languages, *Presented at the Shenandoah Linguistics Symposium* (Southern Virginia College, March 25-26, 1999).
- Lee, Chungmin, 1999b. Types of NPIs and Nonveridicality in Korean and Other Languages. in *UCL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3*.
- Lee, Chungmin, Chung, Daeho and Nam, Seungho, 2000. The Semantics of *anmu-N-to / -irato / -ina* in Korean - Arbitrary Choice and Concession. *The proceedings of the 14th Pacific Asian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 Lee, Youngjoo, 1999. A study on the Quantificational Force of *nuku-na*.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Y.S. 1993. Licensing and Semantics of Any Revisited.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5.
- Nam, Seungho, 1994. Another Type of Negative Polarity Item. in M. Kanazawa and C. Pinon. eds. *Dynamics, Polarity and Quantification*. Stanford: CSLI. Stanford University.
- Nam, Seungho, 1997. The Semantics of 'before' and Negative Polarity. *paper presented at the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Cornell University, Ithaca.
- Nam, Seungho, 1998. Hankwuke pwucengkukeuy yuhyengkwa ku hekakoken (The Typology and Licensing Conditions of Negative Polarity Items in Korean). *Eoneohag (Linguistics) Vol. 22*,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Seoul.
- Progovac, L., 1993. Negative Polarity: Entailment and Binding.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2: 149-180.
- Yasuhiko, Kato, 1985, Negative sentences in Japanese,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Number 19*, Sophia Linguistics
- Zwarts, F.,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Negative Polarity. in S. Busemann. ed. *Views in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2. Berlin.
- Zwarts, F. 1993. Three Types of Polarity. ms. University of Groningen.
- Zwarts, F. 1995. Nonveridical Contexts. *Linguistic Analysis* 25: 286-312.